



작품이 그다지 쉽사리 우리의 앞에 또出現하리라는 期待는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潤松의 一週忌가 다했다. 이 歲暮에 관으로 뜻밖에 待望했던 또 하나의 灘隱 月圖를 筆者 혼자서만이 眼福을 누리고 여기에 이 글을 써야만 하게 된 것을 슬퍼한다.

劉義澤氏가 오래 전에 현 畫帖의 斷片으로서 入手해서 最近에 表具를 고친 小品 두폭, 즉 灘隱의 墨竹一幅과 問月圖一幅을 뜻밖에 石造殿 一室에서 보게 되었을 때 直覺的으로 이것이 待望하던 灘隱의 人物圖일 뿐더러 그 手法는 오히려 潤松所藏 畫보다도 本格的인 作品이라는 점에 더욱 놀라움을 禁하지 못했다.

이 問月圖는 畫帖의 二面에 걸쳐서 그려졌던 것으로서 중간이 접혀졌던 縱三〇.五cm 幅 四一.五cm의 小品이지만 潤松이 石叢金光國의 贊을 빌어서 그 論考속에서 表現했던 바와 같이 實로「疎散之韻이 畫幅에 고요히 흐르고 있는 듯」한 詩情이 넘쳐흐르는 作品이다. 淡月 아래 溪流만 이 비단폭처럼 빛나고 高士는 古木에 超然히 기대어 앉아 달과 손짓하며 지꺼리고 있으며 古木의 가지들은 文字 그대로 枯淡한 筆致로서 그

의 墨竹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疎放한 멋을 풍겨주고 있다. 衣褶만은 濃墨으로서 활달하게 一筆揮之해서 畫面の 焦點을 여기에 두었고 鬅頭亂髮한 육심없는 얼굴의 表現은 潤松藏 畫에 흡사하지만 그 手足의 表現에 있어서는 可謂 入神했다 하리만치 精緻한 妙技를 보여서 潤松藏 畫에서 보나 한층 多能한 그의 技法과 描寫力을 드러내준 느낌이 있다고 하겠다. 全面이 淡水墨이지만 淡靑水色을 溪流周邊과 半月을 싸고 있는 空間에 淡泊하게 운감 했으며 溪流의 흐름을 啓示한 墨은 墨색의 等行線 세 줄, 그리고 溪流가 잘라지는 三角洲에 약간 짙은 먹으로 花瓣 모양 적어넣은 것은 溪石을 表現한 것일가. 어쨌든 이 畫面에는 두개의 表現愛가 깃들여져 있는 것을 看過할 수는 없다. 하나는 疎放과 寫實의 美이며 하나는 거의 抽象에 가까운 省略과 純化의 美이다. 이 後者는 아마 養松堂, 退村 등의 此種 그림에서도 往往 이러한 流의 表現을 볼 수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時代的인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할가. 이 二律的인 表現愛가 한 폭의 그림 위에서 調和의 妙를 얻어 드높은 詩情을 북돋우고 있음은 이 作家의 脫俗한 境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原來 이 畫帖은 灘隱帖이었던 모양이어서 分斷된 두폭만을 劉義澤氏가 入手했던 것이며 畫面의 紙背에 거꾸로 石陽君이라고 草書한 것이 透視해 보이는 것 외에는 아무 款識이나 題跋이 남아 있지 않는 것이 유감이 라고 하겠다.

끝으로 潤松과 더불어 이 그림을 즐길 수 없는 오늘을 筆者는 다시금 다시금 저어한다.

慶州 上人岩의 造像銘記

洪 思 俊

大邱慶州間 鐵道の 乾川驛에서 南으로 長山幽谷을 끼고 二十里 들어가

上 人 岩 磨 崖 銘 文

| | | | | | | | | | | | | | | | | | | | | |
|----|----|----|----|----|----|----|----|----|----|----|----|----|---|---|---|---|---|---|---|----|
| 21 | 20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 路 | | 山 | 佛 | 彌 | 工 | | | 金 | | | | 寶 | 正 | | | | | | 能 | 天 |
| 深 | | 雜 | 教 | 勒 | 等 | | 戊 | 鶴 | | | | 舟 | 相 | | | | | | | 體 |
| 眞 | | 豫 | 盛 | 石 | 仍 | | | 飛 | | | | 超 | 勸 | | | | | | | 道 |
| 知 | 林 | 死 | 思 | 像 | 於 | | | 鳥 | | | | 登 | 以 | | | | | | 眞 | 者? |
| 理 | 相 | 於 | 穹 | 一 | 山 | | | 與? | | | | 彼 | 道 | | 陽 | | | | 約 | 凝 |
| 出 | 爲 | | 穹 | 區 | 巖 | | | 來 | | | | 岸 | 辨 | | | | | 難 | 妙 | 抱 |
| 進 | | | 常 | 高 | 午 | | | 翡 | | | | 法 | 罪 | | | | | 明 | 域 | 有 |
| | 度 | 在 | 樂 | 四 | 創 | | | 叟 | | | | 門 | 福 | | | | | | | 迹 |
| | 舍 | | | 丈 | 造 | | 名 | 爲 | | 隱 | | 不 | 報 | | | | | | | 之 |
| 殺 | | | | 菩 | 伽 | | | 吟 | | | | 二 | 以 | | | | | | 佳 | 所 |
| 名 | 之 | | | 薩 | 籃 | | 亞 | 詩 | | | | 如 | 如 | 有 | | | 母 | 有 | | 從 |
| 由 | 同 | | | 二 | 回 | | 愛 | 曲 | | | | 理 | 意 | | 三 | | 君 | 昔 | | |
| | 水 | | | 區 | 靈 | | | 仰 | | | | 唯 | 響 | | | | | | 慈 | 也 |
| 慶 | 慣 | | 訴 | | 虛 | | | 貌 | | | | 一 | 故 | | 年 | | | | 藏 | 念 |
| | | 千 | 六 | 來 | 名 | | | 誓 | | | 地 | 赤 | 共 | | | 上 | 彌 | 弟 | | |
| 建 | 若 | 百 | 過 | 微 | 神 | | | 懈 | | | 皆 | 霞 | 議 | | | | | 子 | 來 | 雷 |
| 初 | 路 | 行 | 功 | 妙 | 仙 | | | 心 | | | 仙 | 迫 | 曰 | | | 壬 | | 峇 | 兆 | 恨 |
| 興 | 深 | 方 | | 相 | 寺 | | | 府 | | | 佛 | 媛? | 若 | | | 法 | | 珠 | 易 | 路 |
| 庵 | 眞 | 丈 | 八 | 相 | 作 | | | 村 | | | | 澤 | 泯 | | | 父 | | | 而 | 之 |

第三卷 第十二號 通卷二十九號

判讀總數 203字 (井間은 筆者가 함)

銘文數行 歲久苔蝕字不可曉 北若四方屏立不能步
岩面刻七像甚大長丈餘 俗傳僧像岩或云上人岩云

百濟 金銀製裝身具와 金絲

朴 日 薰

扶餘 窺岩面 咸陽里는 扶餘邑에서 白馬江을 건너 窺岩里에서 恩山으로 通하는 街路의 右便 玉泉山南麓에 位置한 部落이다. 이 部落中에 南向한 傾斜地를 耕作中 쟁이에 板石片이 걸려 이를 除去作業中에서 出土된 金屬裝身具·純金細糸는 出土例가 드문 것으로 이곳에 紹介하고자 한다.

一、金製裝身具

銀製자루...一端은 圓形에서 平薄하여지면서 차츰 가늘고 꼬부러졌고 다른 一端은 玉類같은 것을 귀여달았던 듯한 痕跡은 있으나 없애지고 그것을 嵌飾하였던 純金製발치部分만 銀製柄端에 貫通되어 있다. 圓筒形인 그 上端에는 五葉의 花瓣이 열렸고 花瓣의 裏面과 圓筒部表面에는 純金線으로 輪廓을 잡고 露滴같은 小金粒을 連結하여 花紋을 纖細하게 細工하였다. 純金小粒을 連結하여 線을 이루워 紋樣을 이룬 裝身具는 新羅時代 耳環에서 흔히 본 바와 同一한 바와 같은 純金細工을 보이는 百濟의 遺品은 이것이 最初의 確實한 例인 듯하다.

二、純金細絲

머리카락 같이 가늘면서 꼬불꼬불하다. 이것